

전북대, 베트남에 전통 한옥 수출

서울 용산구와 손잡고 퀴논시에 한옥 정자 등 건축 알제리 이어 두번째... 전 세계 한류 문화 확산 선도

전북대학교가 한옥을 베트남 퀴논시에 수출한다. 지난 달 알제리에 이어 두 번째다.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한옥살계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에 선정되는 등 국내 한옥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전북대는 한옥 수출을 통해 한류 문화 확산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1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베트남 빈딩성 퀴논시와 우호교류 25주년을 맞은 용산구와 함께 퀴논 현지에 전통 한옥(정자 1동, 어린이집, 주민센터, 한국정원)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축할 예정이다. 전북대는 이를 계기로 우수한 기술

력을 기반으로 한국 전통의 미를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또한 용산구는 건축 공사비 및 전시장 등을 제공하고, 베트남 퀴논시는 한옥단지가 들어설 건물 조성 부지를 제공하고 토목공사를 맡아 진행한다.

또한 전북대와 협약 기관들은 한옥 건축 및 기술력을 수출하고, 기술진과 재료 등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및 해외 봉사활동 등도 다채롭게 추진키로 했다. 이후에도 전북대는 용산구와 손을 맞잡고 한옥 건축물을 외국에 보급하고, 한옥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한 기

술 혁신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용산구와 베트남 퀴논시는 1997년에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용산구는 자매결연 도시들과 손을 맞잡고 한옥 건축물을 외국에 보급하고, 한옥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남경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장은 "그간 국토교통부의 한옥살계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에 선정되는 등 전북대는 국내 한옥 교육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지난달 알제리에 이어 이번 성과 등을 통해 전 세계에 한류 문화 확산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원 총장은 "이번 협약은 친환경·저탄소의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이면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지니고 있는 전통 한옥 소재 사업 기술 고도화 및 우수성을 외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우리 대학이 보유한 한옥교육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전 세계 한옥 건축 분야 R&D 구축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사회공헌의 혜택이 베트남 퀴논시인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전북대와의 협력모델 구축을 통해 한옥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네트워크 확대에 앞장서겠다"며 "한옥의 세계화는 곧 한국문화 전반의 세계화와 연결된다. 특히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대 신약개발연구소는 18일 대마(Hemp)의 국내외 현황과 새로운 용도 개발 및 산업화 방향'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용 대마 산업화 '시동'

전북대 약대 신약개발연구소, 활용 분야 등 학술 토론회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신약개발연구소(소장 소윤조)가 의료용 대마 산업화에 본격 나섰다.

최근까지 학계는 천연물 산업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주목받는 대마의 유효 성분과 관련 연구 활성화와 관련 규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전북대 신약개발연구소는 18일 대마(Hemp)의 국내외 현황과 새로운 용도 개발 및 산업화 방향'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 토론회에는 대마 연구와 활용 분야 국내 전문가들이 초청돼 열린 강연과 토론회를 펼쳤다.

첫 번째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세계 대마 산업 현황과 한국의 과제(김민년 안동보건소장), 대마의 건강기능식품

으로서의 활용방안(조민수 국민대 교수), LED 식물공장을 이용한 의료용 대마 재배 및 활용(심현주 전북대 교수) 등에 관한 강연이 열렸다.

두 번째 지정토론 세션에서는 장애인 농촌진흥청 약용식물과장, 박상기(주)건설엔지니어링 대표, 이항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허석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국장 등 4명의 전문가 패널이 발표 주제와 관련한 토론을 이어 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적 관점에서 의료용 대마 연구와 한국형 산업용 대마의 기준정립, 산업화의 의미와 대마 산업에서 소비자 안전 측면, 대마 산업의 발전 방향 등에 관한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정은성기자



전북대는 1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베트남 빈딩성 퀴논시와 우호교류 25주년을 맞은 용산구와 함께 퀴논 현지에 전통 한옥(정자 1동, 어린이집, 주민센터, 한국정원)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축할 예정이다.

전북대, 스마트 디바이스 아이디어 캠프 개최

18일부터 사흘간 군산서

전북대학교 창업교육센터(센터장 배준수)와 전북대 LINC+사업단,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0 스마트 디바이스 아이디어 캠프'가 18일부터 사흘간 군산에서 열린다.

이번 캠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에게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초, 아두이노 보드를 활용한 실습 중심의 교육이 이뤄진다.

또한 비즈니스모델 작성과 사업계획서 구성, 프레젠테이션 스킬 등 다양한 창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구체화하는 시간도 진행된다.

팀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는 오는 20일 '2020 스마트 디바이스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전문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우수 창업아이템을 시상할 예정이다.

선발된 팀은 향후 창업동아리 지원사업과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각각 최대 500만 원의 개발비를 지원받는다.

배준수 창업교육센터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교육에 열의를 가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줘 기쁘다"며 "이번 행사에서 발굴된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선도기업 분석경진대회, 전주대 2팀 본선진출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홍성덕)는 18일 전북혁신창업허브에서 (사)캡티브중합기술원, 전북대, 우석대와 공동으로 전라북도 선도기업 분석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직무와 기업분석 역량을 키워 취업률을 높이고 일하기 좋으면서도 지역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라북도 선도기업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기업분석학과 채용연계형으로 나뉜 총 28개 팀, 87명이 참여했다.

기업분석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이

후 심사를 통해 채용연계형 1개팀, 기업분석형 8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전주대 F&M팀(김시현, 이지은, 유호빈, 김다원 학생이) (주)대우식품을 분석하고 새로운 기업 전략들을 제안하며 채용연계 유형에서는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 행정학과 윤영준 박채원, 이주하, 패션산업학과 윤혜정 학생팀도 데크항공(주)를 분석해 본선에 진출했다.

홍성덕 센터장은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는 도내 청년을 위한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 서비스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일자리 유관기관, 대학들과 긴밀하게 협업체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인사혁신처장상' 수상

공직윤리 우수사례 선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20 공직윤리 우수사례 공유대회'에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민이 직접 뽑은 공직윤리 우수사례로 선정된 도교육청의 '특정 업무 재산등록 의무자 확대'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범위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교육지원청 등의 감사, 회계 등 특정 업무담당자를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재산등록의무자를 재발굴해 윤리제도의 엄정하고 공정한 운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0 공직윤리 우수사례 공유대회'는 올해

시상부터 온라인 국민심사 방식을 도입했다. 국민심사는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48건에 대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에 오른 5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3,452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선정된 3개 기관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30일 세종간담센터에서 열리는 '2020 공직윤리 우수사례 공유대회'에서 이뤄진다.

한편 이번 선정된 공직윤리 우수사례 3편은 ▲전북교육청 '감사 회계 등 특정 업무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충북 청주시 '공직자 재산현황과정 심사 강화' ▲경남 김해시 '생활 청렴 챌린지 통한 공직윤리제도 모의실천' 등이다.

/정은성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www.khnp.co.kr



축! 전주매일 창간

무주양수발전소는 무공해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로 전력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이? 수력발전의 일종으로 심야전력을 이용하여 위치가 낮은 하부저수지의 물을 위치가 높은 상부저수지로 끌어 올려 저장하였다가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에 저장된 물을 하부저수지로 낙하시켜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양수발전은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주파수 조절 및 정전적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무주양수홍보관 관람정보

- 관람시간 : 주중 09:00 ~ 17:00, 주말공휴일 10:00~16:00 (입장료 및 주차료 무료)
- 휴관일 : 신정·설연휴·추석연휴·기타 회사 기념일 및 지정일
- 관람신청
- 전화문의 : 070-4000-2141, 2144 · (063)324-3665 / FAX : 0502-734-0543
- 인터넷신청: www.khnp.co.kr/현수원 방문신청 / SNS인증 / 무주양수 전시관
- 주 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괴목로 788 「무주양수홍보관」